

# 대선민심 시험대... 승패따라 정치권 요동

## 투표율이 당락 변수?

정치권 촉각... 선관위는 40%대 전망

### ■ 열전 13일 마감... 오늘 재보선

### 정계개편 소용돌이속 '정치 게임' 변질 무안·신안 김홍업 당선여부 초미 관심

17대 대선의 민심 향배를 가늠할 4·25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4일 막을 내렸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동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3곳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총출동해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기울였다.

특히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후보가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함으로써 최대 관심지역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곳에는 무소속 5명을 포함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공식 선거전 돌입 직전 광주일보·한국갤럽을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는 민주당 김홍업 후보, 무소속 이재현 후보,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 등 3명이다.

특히 민주당 김 후보와 무소속 이 후보는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막판 판세는 김 후보가 이 후보에 비해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대체

적인 분석이다.

김 후보는 비리 전력과 권력세습 논란, 무원칙한 전략공천 등에 대한 현지 여론의 반발로 초반 열세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높은 정당 지지도와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의 총력 지원, 김 전 대통령과의 끈을 쉽게 끊지 못하는 바둑 표심에 힘입어 상승기류를 탄 것으로 관측된다.

무소속 이재현 후보측은 지지기반인 무안에서 앞서 전체적으로는 박빙의 우위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두 차례 무안군수를 지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해 온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비리 전력이 있는데다 당 차원의 집중 지원을 받아온 김 후보에 비해 조직력의 열세를 실감해야 했다. 그러나 무안군의 유권자가 신안보다 1만명 이상 많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도 당 지도부 및 대선주자들의 릴레이 지원 속에 예상외의 선전을 펼쳤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쟁적으로



누굴 찍을까? 4·25 재·보선을 하루 앞둔 24일 무안 상동마을 주민들이 선관위에서 배포한 출마자들의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 유세에 벌여 경선전을 방불케했다. 특히 박 대표는 세 번씩이나 무안·신안을 찾아 지역·이념·세대를 하나로 아우르는 '삼합정치'와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유력 후보들은 무안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신안 연도·연륙교 건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따른 농촌 대책 수립, 노인복지 향상 등을 한 목소리로 내세우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자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기존에 제시된 지역발전 구상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구체성이 떨어져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후보들은 대선 연발 대선과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주력, 이번 선거를 '정치 게임'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도 나

왔다. TV토론에서도 전력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오가는 등 정치공세가 난무해 선거가 막판 혼탁 양상을 보였다.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는 24일 현재까지 모두 18건(무안·신안 3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2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또 파행?... 문화수도 조성 지연

### ■ 문화도시 조성위 민간 위원 집단 사퇴 파문

### 종합계획 수립 내달 넘길 가능성

송재구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의 전격 해촉에 이어 광주지역 민간 조성위원 7명이 집단 사퇴함에 따라 조성위가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송 위원장 체제의 제2기 조성위원회가 출범 지연으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파행된 데 이어, 또 다시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위원장 해촉과 민간위원 집단 사퇴는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벌어진 것어서 그 어느 때보다 사태가 심각하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은 셈이다.

정부는 금주 중으로 신임 조성위원장을 선임한 뒤 신임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기획단 분부장을 조속히 임명,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5월 중에는 광주

시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성위 민간위원 집단 사퇴로 인해 정부는 모든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성위 선임 위원장은 민간위원 7명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광주를 제외한 타지역의 민간위원까지 동반 사퇴할 경우 선임 규모가 더욱 커져 사태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제2기 조성위 출범 당시 송 위원장과 청와대, 문광부의 민간위원 선임안이 크게 달라 7개월간 진통을 겪었던 경험도 이번 민간위원 사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더욱이 새롭게 선임될 민간위원들은 제2기 민간위원의 잔여 임기(1년 6개월)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중 있거나 명망있는 인사들이 참여를

거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민간위원 집단 사퇴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민간위원 선임이 지체되면 당연히 종합계획 수립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합계획은 문광부가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며, 이 계획은 조성위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7명의 민간위원 사퇴로 조성위 구성이 늦어지면 종합계획 수립이 당초 예정인 다음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이번 민간위원 집단사태가 '찾단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다. 집단 사퇴를 한 7명이 모두 송재구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선임된 위원들이란 점에서 그들이 집단적 의사표시라는 방식을 통해 사퇴했었다 '정해진 수순'에 따른 절차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송 위원장 해촉에 이어 민간 조성위원들의 집단 사퇴는 문화도시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노무현 기념관 못 짓는다” 인제대 교수평의회 반대

최근 '노무현 기념관' 건립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경남 김해의 인제대 교수들이 기념관 유치를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제대 교수평의회(의장 성경업 법학교수)는 24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 기념관 유치 반대 성명서'를 통해 "아직 기념관 건립 절차와 비용,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념관 건립에 대

한 학교측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념관 건립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인제대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과 처장에 주력하기 보다 내실을 기해야만 한다"면서 "기념관 건립사업이 대학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 (대학당국에) 엄중히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제대측은 "참여정부의 각종 기록물 등을 전시하고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의 정책 평가를 위해 '노무현 기념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실무적 검토와 대학내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자기부상열차' 광주에 설치해야

### 광주시의회 유치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기부상열차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결의안을 통해 "시범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래 확

장 가능성이 크고 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광주 2호선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주 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며 "호남의 중추도시로서 열악한 재정여건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시에 설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시민들의 유치 열기가 높고 실용화사업의 최적지인 광주를 시범도시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여러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호1 국민에어컨 **귀뚜라미 홈시스**

## 공약대로 가장 시원한 가격으로 가져가세요~ 귀뚜라미 홈시스 에어컨 만족백배 축제!

※ 행사기간 : 2007. 4. 1 ~ 4. 28

### 1 에어컨! 가격부담은 내리고, 사은품은 올리고!!

- 벽걸이에어컨 구매시 16' 선풍기와 문라이트 도자기 SET증정
- 패키지에어컨 구매시 공기청정기(KHA-520) 증정

### 2 다양한 무이자혜택 및 Slim할부 혜택

- 국민카드, LG카드 : 3~6개월 무이자
- BC카드 2,3개월 무이자
- LG카드 Slim할부(8개월, 12개월, 16개월, 18개월로 선이자만 부담 (행사 참여자에 한함))

(귀뚜라미) (성원전문점) (귀뚜라미범양냉장점)  
1588-9000, 1600-2000, 1566-0033

### 3 新 금융 굿세이브리스 런칭기념 사은혜택

- 거꾸로 냉난방기 구매시 5평형에어컨(PS-050C) 또는 공기청정기(KHA-1860) 증정(행사 참여자에 한함) (단 HCR-IN100R,HSM-IN210R, 한전원격제어에어컨 제품 제외)

### 4 항상 잡는 공기 청정기 출시기념!!

- 필터 무료증정
- 공기청정기 구매시 최장 2년분의 필터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Homsys

